

잡아함 132. 불습근경

날짜: 4월 27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6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물질을 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악마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며, 악마의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악마의 결박에 결박되지 않으며 악마의 엉맺을 벗어나 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을 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여 밤들어 행하였다.

(…내지, 물질을 뱉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